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3호 [루게 제25001호] 주제 104 (2015)년 8월 1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여자축구선수들을 따듯이 맞아주시었다

우리 당의 위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이 자랑스런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또 하나의 경이적인 체육신화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며 10월의 대륙전장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빨찌산공격방식으로 눈부신 황금의 9개 꽃을 터뜨리며 맞다른 강팀들인 일본팀, 중국팀, 남조선팀을 여지없이 눌러버리고 변전편승의 체육신화를 창조하여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을 거머쥔 선군조선의 장한 딸, 빨찌산녀전사들이 10일 비행기로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비약의 기상을 과시하며 세인을 놀래운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을 맞이하는 평양국제비행장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비행장에서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직접 맞아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체육상 김영훈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연맹 위원장 김정만동지가 비행장에 함께 나왔다.

경기마다에서 선군조선체육인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친 우리의 미덥고 장한 여자축구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펼쳐 나온 환영군중의 얼굴마다에는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를 비롯한 지난 경기대회들에서 지역의 강팀들을 물리치고 편승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단연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조선여자축구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친 크나큰 자량과 기쁨이 한껏 넘쳐 있었다.

오후 4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항공역량 정류장에 들어섰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정류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북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비행장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져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예의 금메달을

어머니조국에 안고 온 우리의 장한 여자축구 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이 제시한 빨찌산 공격전법으로 싸워 이번 경기대회에서 주체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스런 선물을 마련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었다.

치열한 경기의 나날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뵈고싶었고 승리의 단상에 올라 조국의 하늘을 그려볼 때에도 자애로운 그 영상이 후덥게 어려와 걱정의 눈물속에 우리드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 땅에 도착하는 첫 순간 제일먼저 뵈우게 된 여자축구선수들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누르지 못하며 원수님의 품에 와락 안겨들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2 면 으 로 계 속



하늘높이 떠올리자! 승전의 개가를 만방에 높이 올린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20여만의 평양시민들 2015년 동아시아 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여자 축구 선수들을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

【평양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백두의 혁명정신,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10월의 대륙전장을 향해 온 나라가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시기에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경사가 났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편전패승으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고 세계의 장광높이 랍홍색 공화국을 보란듯이 휘날린 우리의 장한 딸, 선군조선의 빨치산녀전사들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2013년 동아시아여자축구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편이여 우승하여 세인을 놀래운 우리의 여자 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맞닿은 일본, 중국, 남조선팀들을 통쾌하게 눌러버린 영예의 우승컵을 거머쥐고서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다.

국제체육무대에서 경이적인 체육신화를 창조함으로써 태양조선의 존엄과 영예,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파시한 당과 수령의 총지휘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의 혁혁한 위훈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애국총동의 고귀한 선물이며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빛내인 또 하나의 장귀이다.

10일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미더운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을 맞이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의 승전소식이 너무나 기쁘시여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어린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는데 이어 나라일예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어 직접 따뜻한이 맞이하신 격동적인 소식에 집한

평양시민들은 우리의 체육전사들을 하늘높이 떠받들어주시는 자애로운 원수님의 대대같은 은정에 목이 매여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승전고놀이 울리고 돌아오는 우리의 장한 딸들을 맞이하게 된 수도의 거리마다는 각계층 시민들의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평양국제비행장으로부터 편뚝뚝, 뚝뚝네거리, 개신문거리, 창전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손에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 고무 풍선을 들고나온 20여만의 평양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거리들에는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2015년 동아시아 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고 돌아오는 여자 축구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문들이 세워져있었고 랍홍색공화국들이 나뭇기고있었다.

나라들사이의 정신력과 체육기술의 대결장인 국제경기무대에서 당이 안겨준 담덕과 배짱으로 싸워 조진여자축구의 위력을 떨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시기를 기다리며 수도시민들은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국제경기장에서 선군조선의 영예를 높이 떨친 체육인들을 애국자, 영웅으로 내세워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첫 순간 오빠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에 휩싸인 선수들을 태운 배스가 평양국제비행장을 떠나 순안구역 인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전승세대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는 선군조선, 태양민족의 불멸의 위용을 구가하며 《가리라 백두산으로》,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취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을 태운 배스가 번뜻번뜻이 이르자 조국과 인민의 끝없는 축하의 마음들이 그대로 꽃수레를 이룬 대형무개차가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공화국기가 그려져있고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들로 단장된 대형무개차가 출발하자 또다시 환영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쳤다.

《장하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등의 환성이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 거리들에는 축하의 꽃다발, 기쁨의 송물결이 펼쳐졌다.

세계여자축구를 다시 한번 휘젓고들어온 축구장자들에게 서성구역안의 남녀군로자들이 너도나도 달려나가 꽃다발과 꽃무걸이를 안겨주며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장하다, 정말 통쾌하다! 참으로 불만하다!》,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이 제일이야!》 등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찬란의 목소리와 어디 한번 안아보자,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서로서로 키돋음을 하면서 반겨주는 사람들.

조국의 영예를 떨친 오늘의 예쁜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고싶고 가슴에 새기고싶어 끝없이 실례하는 군중들의 환영의 꽃물결에 실려가며 선수들은 경기대회의 전기간 패보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했을 조국과 인민의 기대와 열연의 정을 다시금 뜨겁게 느꼈다.

정말 으뜸에는 매일과 같이 기쁜 소식만 전해들는다. 옛그제는 제16차 국제수영

련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관경기에서 우리의 나이던 김국향 선수가 단연 제1위를 쟁취하여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이 승전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또다시 랍홍색공화국을 창공높이 휘날림으로써 선군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한 선수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떠받들고싶다.

이것은 비단 김충태경기기관차환합기소 로동계급의 심장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사랑과 정이 넘친 심장의 목소리였다.

《장하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친 승리자들이여》

우리 식의 위대한 경기방식인 빨치산 공격전법으로 맞닿는 강림들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득점명수 주장 라은실선수.

일본팀과의 첫 경기에서 상대팀 방어진을 연이여 허물고 두골을 성공시켜 승리의 물과를 열여놓은 리예경선수와 멋들어진 팔로 팀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위정심, 김윤미, 윤송미선수들.

가리라는 인민의 마음, 잠뜨는 조국의 밤을 안고 우리의 장한 딸들이 화선에 나선 육탄용사마냥 달려고달린 경기장은 그대로 조국의 명예를 건 결전장이였기에 그들이 오면 시상대는 정녕 전하의 나날 승리한 고지들에 울려 퍼지던 영웅세대들의 승전고를 끝없이 울려가게 하는 금지높은 단상이었다.

백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곳곳이 이어 나가는 인민의 영광이 하늘땅에 차넘치는 속에 여자 축구선수들이 탄 꽃수레가 서성구역, 대성구역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뚝뚝네거리로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의 승전소식이 너무나 기쁘시여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어린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는데 이어 나라일예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어 직접 따뜻한이 맞이하신 격동적인 소식에 집한

평양시민들은 우리의 체육전사들을 하늘높이 떠받들어주시는 자애로운 원수님의 대대같은 은정에 목이 매여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승전고놀이 울리고 돌아오는 우리의 장한 딸들을 맞이하게 된 수도의 거리마다는 각계층 시민들의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평양국제비행장으로부터 편뚝뚝, 뚝뚝네거리, 개신문거리, 창전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손에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 고무 풍선을 들고나온 20여만의 평양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거리들에는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2015년 동아시아 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고 돌아오는 여자 축구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문들이 세워져있었고 랍홍색공화국들이 나뭇기고있었다.

나라들사이의 정신력과 체육기술의 대결장인 국제경기무대에서 당이 안겨준 담덕과 배짱으로 싸워 조진여자축구의 위력을 떨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시기를 기다리며 수도시민들은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국제경기장에서 선군조선의 영예를 높이 떨친 체육인들을 애국자, 영웅으로 내세워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첫 순간 오빠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에 휩싸인 선수들을 태운 배스가 평양국제비행장을 떠나 순안구역 인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언제나 따뜻한 단발머리를 기록처럼 날리며 경기장을 힘껏 달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애국의 실천으로 보답한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뜨겁게 축복하며 김철주사범대학,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의 청년학생들이 《잘 싸웠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목청껏 외쳤다.

인민극장앞을 지나 환영의 파도를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선수들을 태운 차는 만수대안덕으로 향하였다.

가장 경건한 마음안고 만수대안덕에 오른 여자 축구선수들은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체육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성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넉넉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안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의 열광마당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국제경기장에서 영웅조선의 경이적인 축구신화를 끊임 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총성의 맹세가 어찌있었다.

평양시민들의 열정적인 환영은 보물문을 지나 천리마거리로 계속 이어졌다.

조선로동당의 미더운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딸들을 축하하여 수도 평양에 펼쳐진 감격적인 화북은 백두의 넓과 기상, 불굴의 정신력으로 영웅조선의 승리의 개가를 세세년년 높이 울려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의 힘있는 분출이다.



철도현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으로동계급의 기상 펼쳐갈 의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며

하루 빨리 첨단에서

련합기업소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지금 가슴벅찬 영예와 긍지로 설레이고있다.

지난 7월 중순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역세게 자라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영웅적으로동계급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이 지난 70년간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철도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려면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이곳 련합기업소에는 우리 철도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적덕이 아로새겨져있다.

역사의 그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평양철도공장(당시)에 올린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나 들려오는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그날은 주제 34(1945)년 11월 10일이었다.

반동분자들이 당시의 긴장한 상황사정을 리용하여 일으킨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으로 나가기보실것을 결심하시었다.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하인 연락애를 나서시어 《국고도상에 가보실인 난관을 뚫고나가기》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우리는 길로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던 철도로동계급을 공장, 주인, 철도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고 불러주시며 하루빨리 공장을 복구하고 혼란된 철

도운행을 정상화해나갈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었다.

주인,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가.

세기면 새길수록 해방의 각오로 풀어진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신 백두산혈새의 위대한 대해같은 사상이었다. 평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나라의 철도 운영문제를 그 담당자들인 로동계급의 열의를 불리이켜 해결해나가기라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나라의 철도운수를 하루빨리 복구하는데서 고루적기초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로동계급은 일제가 파괴한 나라의 철도운수를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파카히 떨치셨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새 조선의 첫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전선과 후방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승리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오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던은 우리 수령님께서 물소 현지에 찾아오시어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 심장같이 굳건히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전후재가꾸는 날에는 무너진 벽체에 우설개도문을 쳐놓으시고 공장을 원상대로만 복구할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로 후손들에게 넘겨줄 공장으로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셨다.

이곳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자력갱생의 강자들이 만든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에 깊은 뜻을 담아주시려 한 동안 생각해 잠겨계시다가 수령님께서 《붉은기》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시었다.

이 이름은 대번에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리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소, 세손으로 만든 동무들이 좋다면 좋은것이요, 붉은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전기기관차앞뒤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만 들어붙이는것이 좋겠습니다고 교시하시었다.

하여 우리의 전기기관차는 《붉은기》라는 뜻깊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전기기관차의 앞뒤에서 힘차게 휘날리고있는 붉은기, 그것은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붉은기를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돌진해나가기라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상징일뿐 아니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온 역세게 전진시키는 혁명기치를 상징하는것이였다.

이러한 붉은기를 전기기관차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휘날리는 붉은 기를 달아내도록 하는데 크나큰 이바지할수 있었던은 우리 수령님께서 물소 현지에 찾아오시어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 심장같이 굳건히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전후재가꾸는 날에는 무너진 벽체에 우설개도문을 쳐놓으시고 공장을 원상대로만 복구할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로 후손들에게 넘겨줄 공장으로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셨다.

이곳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자력갱생의 강자들이 만든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에 깊은 뜻을 담아주시려 한 동안 생각해 잠겨계시다가 수령님께서 《붉은기》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시었다.

이 이름은 대번에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리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소, 세손으로 만든 동무들이 좋다면 좋은것이요, 붉은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전기기관차앞뒤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만 들어붙이는것이 좋겠습니다고 교시하시었다.

하여 우리의 전기기관차는 《붉은기》라는 뜻깊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전기기관차의 앞뒤에서 힘차게 휘날리고있는 붉은기, 그것은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붉은기를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돌진해나가기라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상징일뿐 아니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온 역세게 전진시키는 혁명기치를 상징하는것이였다.

이러한 붉은기를 전기기관차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휘날리는 붉은 기를 달아내도록 하는데 크나큰 이바지할수 있었던은 우리 수령님께서 물소 현지에 찾아오시어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 심장같이 굳건히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전후재가꾸는 날에는 무너진 벽체에 우설개도문을 쳐놓으시고 공장을 원상대로만 복구할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로 후손들에게 넘겨줄 공장으로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셨다.

이곳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자력갱생의 강자들이 만든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에 깊은 뜻을 담아주시려 한 동안 생각해 잠겨계시다가 수령님께서 《붉은기》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나 시대적 추세를 맞게 해나갈수 없으며 문명하고 유복한 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일터의 저녁이다. 하루일을 마친 로동자들이 련합기업소 과학기술보급실에 꾸러진 전자열람실로 들어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한 졸업생들이다.

각기 컴퓨터를 마주하고 홈페이지 접속한다.

제시된 시간표에 따라 강의의 문을 열어준다. 전공은 서로 다르다. 전기기계기구학과, 기계전자학과, 응용전자학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일터의 배움을 떠우고나갈 여려 분야의 주인공들이 한꺼번에 자라나고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철도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가 함을 담당할수 있는 선진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나 시대적 추세를 맞게 해나갈수 없으며 문명하고 유복한 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비상한 창조정신과 지름길

3가공직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업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식 지하전동차개발사업에서 고속압축기, 문편동장치, 제동장치 등 담당한 3가공직장 로동계급의 임무는 무겁다. 고속압축기만 보아도 부품들이 수백개에 달한다.

일반전기기관차압축기에 비해 배를 두피가 작지만 공기생산량은 많다. 부품들의 부피도 상대적으로 작아 가공에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과제는 어렵고 기일은 긴박하다. 하지만 직장인들과 로동계급은 결사의 각오로 달려붙어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벌써 고속압축기 2대에 해당하는 값은 주요부품들을 손색없이 짚어냈으며 다른 장치들의 부속품가공도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한마디로 지름길을 달리고있는 셈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판별을 위해 헌신하신 직장인들과 로동계급의 비상한 창조정신이 낳은 혁신적성과이다.

많은것이 달라졌다. 특히 주목되는것이 매일 아침 작업이 어떤 일결이 진행되는 기술학습이다. 시간은 길지 않다. 하지만 자기들이 알아야 할 부속품의 도면을 마주하고 기술특성으로부터 가공방법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이 과정은 하루작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첫 공적으로 되고있다. 강사는 직장인들이나 기술공정원들만이 아니다. 고급기술공들과 신입공들도 멘토로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전에도 주 1차씩 기술학습의 날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새로운 전투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요구 앞에서 직장인들의 작전도 달라졌다. 몇몇 고급기술공들만이 아니라 모든 선반공들이 어떤 형태의 정밀부속품가공을 맡겨주어도 자기만의 편차없이 깎아내도록 하는것은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였건이다.

기술학습후 진행되는 보어주 기사업도 직장인들이 중시하고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리론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는 법이다. 일꾼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선반공들이 방공전에 진행한 기술

학습의 내용을 다시한번 되새겨도록 하고있으며 집의응답과 같은 방법들도 적용하여 인식의 효과성을 한층 더 높이고있다.

직장인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고급기술공들과 신입공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작업조직도 짜고들고있다. 선반공들은 고급기술공들의 방조를 받으며 자기 손으로 직접 정밀부속품을 깎는 과정에 기술학습과 보어주 기사업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소유하고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직장종업원들이 새로운 가공기술을 신속정확히 파악하고 실천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또 이 과정은 그들모두에게 비상한 창조정신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이렇게 일꾼들만이 아니라 종업원모두가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닐 때 비장의 넓은 지름길을 한시바삐 개척할수 있으며 질풍같은 속도로 내달릴수 있다.

너도나도 과학기술공부의 기수가 되어 철도현대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려는 직장인들과 종업원들의 열의는 날마다, 시간마다 혁신적성과를 낳고있다.

본사기자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던 그때처럼

제관직장 일꾼들과 로동계급

회관기간에 우리 식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하는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제관직장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중대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후 설계도면들을 놓고 한자리에 모여있는 직장인들과 종업원들, 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파과자, 기술자들과제관직장의 일꾼들은 이 차를 개발생산하는데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무늬이언제공사 결속, 언제콩크리트치기 96%계선 돌파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들 앞뒤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승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수령의 유관련결전, 당정책을위한 결속을 앞당기는 기본 소식이면 이면 실천되고있다.

건설전선공정성애에 여러 시공단원의 건설자들이 8월에 들어와 백두산선군청년동력발전공사의 협동전에 이취형언제콩크리트를 마감 단계에 힘있게 다가서는 속에 1호연제콩크리트치가 96%계선을 돌파하였다. 특히 중심부연제구간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은 대담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지난 8일까지 전구간의 무늬이언제공사를 마치고 5블록의 마지막콘크리트치기에 총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연두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청년공정성의 책임일꾼들은 시공단원들이 8월중에 연제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고있다. 특히 연제구에 지어놓은 2호, 3호연제구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중심부연제구간의 무늬이언제공사를 8월에 들어와 공정속도를 더 높여 5블록의 무늬이언제공사를 또다시 결속하였다. 앙양된 그 기세, 그 기쁨으로 사업소가 맡은 마지막블록들에 대한 변속타임에 진입한 직장의 로동자들은 위용조립속도를 부단히 높여 지난 9일 아침까지 5블록으로 자기 높이에 올려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이 지난 8일에 3블록의 무늬이언제콩크리트치기를 끝냄으로써 전구간의 무늬이언제공사를 마치고 계속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백두대지여울리고있다. 일꾼들이 자주 현장에 내려가 작업반별생산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대적인 비인계인수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선별직장의 로동자들이 골재선별실적이자 골재의 높이를 높이는것을 명심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교대별로 800㎡이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던 그때처럼

제관직장 일꾼들과 로동계급

회관기간에 우리 식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하는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제관직장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중대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후 설계도면들을 놓고 한자리에 모여있는 직장인들과 종업원들, 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파과자, 기술자들과제관직장의 일꾼들은 이 차를 개발생산하는데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이름을 달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전기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로동계급에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들어주시었다.

무늬이언제공사 결속, 언제콩크리트치기 96%계선 돌파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들 앞뒤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승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수령의 유관련결전, 당정책을위한 결속을 앞당기는 기본 소식이면 이면 실천되고있다.

건설전선공정성애에 여러 시공단원의 건설자들이 8월에 들어와 백두산선군청년동력발전공사의 협동전에 이취형언제콩크리트를 마감 단계에 힘있게 다가서는 속에 1호연제콩크리트치가 96%계선을 돌파하였다. 특히 중심부연제구간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은 대담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지난 8일까지 전구간의 무늬이언제공사를 마치고 5블록의 마지막콘크리트치기에 총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연두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청년공정성의 책임일꾼들은 시공단원들이 8월중에 연제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고있다. 특히 연제구에 지어놓은 2호, 3호연제구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중심부연제구간의 무늬이언제공사를 8월에 들어와 공정속도를 더 높여 5블록의 무늬이언제공사를 또다시 결속하였다. 앙양된 그 기세, 그 기쁨으로 사업소가 맡은 마지막블록들에 대한 변속타임에 진입한 직장의 로동자들은 위용조립속도를 부단히 높여 지난 9일 아침까지 5블록으로 자기 높이에 올려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이 지난 8일에 3블록의 무늬이언제콩크리트치기를 끝냄으로써 전구간의 무늬이언제공사를 마치고 계속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백두대지여울리고있다. 일꾼들이 자주 현장에 내려가 작업반별생산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대적인 비인계인수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선별직장의 로동자들이 골재선별실적이자 골재의 높이를 높이는것을 명심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교대별로 800㎡이

선군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한 10대의 세계선수권보유자

제 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국향선수의 경기성과를 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체육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으로 온 넋과 심장을 불태우며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 나가는 담의 미더운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애방 일흔둘과 당창건 일흔둘을 혁명적전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체육경쟁의 패일에 대한 신심을 더 해주는 자랑찬 승전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제 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경기에서 단연 우승하여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이 종목에서 우리 나라의 첫 세계선수권보유자가 된 김국향선수의 혁혁한 성과 역시 온 나라를 끓여이 격동시키고 있다.

김국향선수가 높은 난도동작들을 훌륭히 펼쳐보일 때마다 관중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예선경기를 거쳐 준결승경기에서도 김국향선수는 자기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었다.

7월 30일 저녁 7시 30분, 우리 나라의 김국향선수가 결승 경기장에 나섰다.

이제 애리도 재 못지 못한 소녀, 하지만 더 어린 두려움이나 위구심이 아니라 너무도 당돌하고 신심에 넘친 김국향선수의 당찬 모습에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패권을 쥔것은 기적이라고 할만 하다. 지난 시기에는 중국 선수들이 독방을 치다싶이 했는 데 이번엔 김국향선수가 우승한 것은 조선에서 물에뛰어들기 종목이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 하면서 한결같이 흥분된 심정을 머지않았다.

국제심판원들까지 앞을 다투어 찾아와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김국향선수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줬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김은향, 송남향선수들도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으며 제 31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은세계를 뒤흔든 조선의 기적! 라고한 재능이 낳은 기적이긴 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국제경기 경험이 전혀 없는 김국향선수가 단숨에 세계패권의 명마루에 올라설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애이린 나무도 태양의 빛받음 받아 즐거울 때 옥빛에 맺히며 거목으로 자라나기마련이다.

전, 몸뚱이, 입수물잡기 등과 같은 난도높은 동작들을 2초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물에뛰어들기는 결코 쉬운 종목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밝힌것 강령적 가르침이 김국향선수에게 비약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주었다. 역사적인 서한을 자자구구 학습할수록 필승의 신심이 더욱 굳어올랐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패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것이 조선의 체육정신!

이 불멸의 명언에 다 있었다. 조선의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간직해야 할 필승의 의지도, 불굴의 기상도, 당당한 배짱도.

달려도, 달려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세계의 앞장에서 불같이 달려야 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지.

초석같이 새겨진 결심은 더욱 놀라운 훈련열정을 더했다.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보다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공강간격과도 속도와, 빠른 몸뚱이와 입수물잡기기술 등이 높은 수준에서 속속 연마되게 되었다.

체육경기에서 우연한 승리란 없다.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김국향선수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제노라 하는 전적을 자랑하던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우승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산악과 같이 역세게 다져진 필승의 정신과 무비의

이 나날에 김국향선수는 국제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전도가 확고하게 기대되는 선수로 주목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밝힌것 강령적 가르침이 김국향선수에게 비약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주었다. 역사적인 서한을 자자구구 학습할수록 필승의 신심이 더욱 굳어올랐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패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것이 조선의 체육정신!

이 불멸의 명언에 다 있었다. 조선의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간직해야 할 필승의 의지도, 불굴의 기상도, 당당한 배짱도.

달려도, 달려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세계의 앞장에서 불같이 달려야 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지.

초석같이 새겨진 결심은 더욱 놀라운 훈련열정을 더했다.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보다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공강간격과도 속도와, 빠른 몸뚱이와 입수물잡기기술 등이 높은 수준에서 속속 연마되게 되었다.

체육경기에서 우연한 승리란 없다.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김국향선수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제노라 하는 전적을 자랑하던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우승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산악과 같이 역세게 다져진 필승의 정신과 무비의

달려도 의지, 세계를 압도하는 높은 육체기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기적은 너무도 뜻밖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판상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조선의 김국향선수가 중국선수들을 보기 좋게 누르고 일약 세계패권자로 등장하였다. 중국선수들에 대한 신화가 허물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김국향선수가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해 외신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룩한 김국향선수의 자랑찬 승리는 우리의 체육강국건설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가까운 앞날에는 모든 종목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체육강국을 만드는 일로 더욱 나아갈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떨친 민족의 찬사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워하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강성국가의 명마루에 오를것을 기대한다. 공강간격과도 속도와, 빠른 몸뚱이와 입수물잡기기술 등이 높은 수준에서 속속 연마되게 되었다.

체육경기에서 우연한 승리란 없다.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김국향선수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제노라 하는 전적을 자랑하던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우승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산악과 같이 역세게 다져진 필승의 정신과 무비의

단숨에 세계패권자로!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련맹이 주최하는 가장 높은 급의 국제경기대회이다. 더욱이 물에뛰어들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의 세계패권쟁탈전인 동시에 제 31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인것으로 하여 이번 선수권대회에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최대로 집중되었다.

얼마전 러시아의 까잔에서 열린 이번 선수권대회의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경기에서도 우리 나라와 함께 중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등 수십개 나라와 지역의 근 4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그중에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와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는 중국선수들 비롯하여 제 30차 올림픽경기대회 등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세계인인 선수들도 적지 않았다.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경기에서는 메 시자 예선경기부터 시작하여 예선 서로

다른 난도높은 동작을 수행하면서 5차례 물에뛰어들기를 하게 되어있다. 허공에서 수평하는 동작의 정확성과 아름다움, 물에 들어갈 때 몸과 물면자의 각도, 자세의 정확성을 비롯한 동작들의 수행정도를 평가한 점수들을 종합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지난 시기 물에뛰어들기 10m고정판경기에서 중국선수들이 배편적지위를 차지한 점에 기초하여 나름대로 우승후보자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상상밖의 현실이 펼쳐졌다.

예선경기때부터 예상을 뒤집고 메 시자 예선경기에서도 대담하게 수행하여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의 김국향!

이번 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한, 세계무대에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번 조선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 관중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 지역의 감독, 선수들도 깜짝 놀랐다.

첫번째 뛰어들기부터 마지막 다섯번째 뛰어들기에 이르기까지 김국향선수는 자기가 디디고 선 고정판은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나선 격전장의 출세 발판으로 여기고 신심있게 솟구쳐올랐으며 정시에 편미해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난도높은 동작들을 기백있게, 자신만만하게 수행하였다.

397.05점이라는 최고점수 기록을 세운 김국향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감지되고 있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속에 경기장에 높이 오르는 함성공화국기를 바라보는 김국향선수의 눈가에 뜨거웠듯이 씩씩아올랐다.

은 대회장이 천련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정말 놀랐다. 조선의 김국향선수가 세계적인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계패권! 이것은 김국향선수가 늘 가슴에 품어온 꿈이었다.

평안에서 나서자란 김국향선수의 부모는 예전의 레스빙, 체조선수들이었다. 어머니는 현재 체육단 체조감독으로 사립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다. 김국향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체조, 레스빙 선수로 자라왔다. 김국향선수가 체육의 세계에 뛰어든것은 8살때였으며 어느 한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체조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천성적으로 활동성이 좋고 반응력이 높아서인지 국향이는 어린 때부터 체조의 세부종목들중 하나인 조마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시점에서 어느날 텔레비전편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있는 국제경기대회의 물에뛰어들기 10m고정판경기에 참가한 우리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던 어머니로부터 우리 나라에 아직 이 종목에서 세계선수권보유자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부터 며칠후 딸은 어머니

에게 물에뛰어들기선수가 되었다는 결심을 피했다. 너무도 뜻밖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세계선수권보유자 김갑숙선수의 뒤를 이어 세계체조계의 패권자가 되었다던 꿈은 어떻게 하는가고 묻자 국향이는 이렇게 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체조계의 당당한 패권자가 나왔다고 그토록 기뻐하셨는데 물에뛰어들기종목에서도 세계선수권보유자가 배출되었다는것을 어찌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절없는 자식으로만 여겼던 그 어린 가슴에 그려졌던 다른 열망이 끓고있는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국향이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나갔다.

이렇게 되어 김국향선수는 2011년에 체조에서 물에뛰어들기종목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는 신정림감독의 지도 밑에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조마운동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첫출발부터 공강에서의 정확한 자세에 기초한 각인 회

전, 몸뚱이, 입수물잡기 등과 같은 난도높은 동작들을 2초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물에뛰어들기는 결코 쉬운 종목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밝힌것 강령적 가르침이 김국향선수에게 비약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주었다. 역사적인 서한을 자자구구 학습할수록 필승의 신심이 더욱 굳어올랐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패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것이 조선의 체육정신!

이 불멸의 명언에 다 있었다. 조선의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간직해야 할 필승의 의지도, 불굴의 기상도, 당당한 배짱도.

달려도, 달려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세계의 앞장에서 불같이 달려야 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지.

초석같이 새겨진 결심은 더욱 놀라운 훈련열정을 더했다.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보다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공강간격과도 속도와, 빠른 몸뚱이와 입수물잡기기술 등이 높은 수준에서 속속 연마되게 되었다.

체육경기에서 우연한 승리란 없다.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김국향선수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제노라 하는 전적을 자랑하던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우승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산악과 같이 역세게 다져진 필승의 정신과 무비의

이 나날에 김국향선수는 국제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전도가 확고하게 기대되는 선수로 주목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밝힌것 강령적 가르침이 김국향선수에게 비약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주었다. 역사적인 서한을 자자구구 학습할수록 필승의 신심이 더욱 굳어올랐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패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것이 조선의 체육정신!

이 불멸의 명언에 다 있었다. 조선의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간직해야 할 필승의 의지도, 불굴의 기상도, 당당한 배짱도.

달려도, 달려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세계의 앞장에서 불같이 달려야 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지.

초석같이 새겨진 결심은 더욱 놀라운 훈련열정을 더했다.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보다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공강간격과도 속도와, 빠른 몸뚱이와 입수물잡기기술 등이 높은 수준에서 속속 연마되게 되었다.

체육경기에서 우연한 승리란 없다.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김국향선수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제노라 하는 전적을 자랑하던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우승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산악과 같이 역세게 다져진 필승의 정신과 무비의

달려도 의지, 세계를 압도하는 높은 육체기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기적은 너무도 뜻밖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판상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조선의 김국향선수가 중국선수들을 보기 좋게 누르고 일약 세계패권자로 등장하였다. 중국선수들에 대한 신화가 허물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김국향선수가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해 외신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룩한 김국향선수의 자랑찬 승리는 우리의 체육강국건설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가까운 앞날에는 모든 종목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체육강국을 만드는 일로 더욱 나아갈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떨친 민족의 찬사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워하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강성국가의 명마루에 오를것을 기대한다. 공강간격과도 속도와, 빠른 몸뚱이와 입수물잡기기술 등이 높은 수준에서 속속 연마되게 되었다.

체육경기에서 우연한 승리란 없다.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김국향선수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제노라 하는 전적을 자랑하던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우승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산악과 같이 역세게 다져진 필승의 정신과 무비의

그 어떤 수승과제도 문제 없다

2중3대혁명붉은기 천마군자동차사업소 일군들의

얼마전 우리는 천마군자동차사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산인 기계 및 화물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사업소의 모든 차량의 성능이 좋은것은 물론이고 종업원들모두의 기술기능수준이 높다는것이였다.

위 대원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동차전수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업소에서 들어서니 우리가 생각했던것보다 더 놀라운 현실이 펼쳐져있었다. 여러대의 려적버스와 각종 화물자동차들이 새차처럼 정비되어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차량과 비결에 대하여 우리는 취재반장에 잘 알게 되었다.

10년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대의 화물자동차와 베스만이 운

행할뿐 사업소에 있는 거의 모든 차량이 교정난 상태에 있었다.

지배인으로 임명된 안경봉동무는 사업소의 모든 물건기계를 살려내고 정장수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나갔다.

기능이 높은 수리공들과 년한 있고 일정한 운전기술을 소유한 운전사들을 주축으로 교정난 차량을 살려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기술이 높지 못한 운전사들을 이 사업에 적극 망려도록 하는 경비를 쌓아 갔다.

새 부속들을 구입하면 조립하기 전에 못쓰게 된 부속들과 대비해보면서 교정난하는 물론 부속들의 성능에 대해서도 스스로 파악할수 있게 하였으며 수리정비를 전담적인 호상 연락조직을 전진전출로 하는 습관을 붙이게 하였다.

일군들은 차수리과정에 쌓은 경험과 교훈을 일반화하기 위해

기술학습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미 사업소에서 진행되고있는 기술학습시간에 차수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청문회 형식으로 풀이해 주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하였으며 일부 자동차수리공들도 자체로 생산하게 되었다.

이 나날 사업소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져 그 어떤 물건기제도 제법리 수리하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른 군들과 군소재에서 멀리 떨어진 리까지 베스운행용 정장수리를 보장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다.

천마군의 경험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목표로 책임지는 밑거름이 되고, 모범을 세우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야 하는 밑거름이 되고, 현 조건에 맞게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자기 단위의 사업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업원들은 자레로 차수리를 편리하게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내놓는가 하면 수리기술들도 하나씩 창안제작하게 되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하였으며 일부 자동차수리공들도 자체로 생산하게 되었다.

이 나날 사업소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져 그 어떤 물건기제도 제법리 수리하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른 군들과 군소재에서 멀리 떨어진 리까지 베스운행용 정장수리를 보장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다.

천마군의 경험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목표로 책임지는 밑거름이 되고, 모범을 세우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야 하는 밑거름이 되고, 현 조건에 맞게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자기 단위의 사업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어머니의 진정이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위 대원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것이다.》

지난해 11월말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교과소과 의 리 리순미동무는 소아과부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한 의료일군으로부터 담당환자의 건강회복이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사원을 졸업하고 이곳에 배치받은 불과 한해밖에 안된 그의 마음속에는 열광의 한쪽 부위에 미미가 하 하루 24시간 눈을 감지 못하는 한사람이 환자, 신봉하고 그 환자는 리순미동무의 귀여운 아들과 나이가 똑 같았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소아과의사로 일하는것만큼 보람찬 일인 줄로 믿고 있었지만 리순미동무는 소아과부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한 의료일군으로부터 담당환자의 건강회복이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사원을 졸업하고 이곳에 배치받은 불과 한해밖에 안된 그의 마음속에는 열광의 한쪽 부위에 미미가 하 하루 24시간 눈을 감지 못하는 한사람이 환자, 신봉하고 그 환자는 리순미동무의 귀여운 아들과 나이가 똑 같았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

환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이가 들어 자식을 본것으로 하여 그의 심정은 자기의 남편보다 더할것이라는 생각이 리순미동무는 그날 잠들지 못했다.

그후 해당 질병과 관련한 참고문헌들을 탐독하며 확신을 더욱 가진 그는 피의로집단의 방조속에 환자치료사업에 달려나갔다.

그러나 왜서인지 한우일이 지나도록 환자의 병은 호전될줄 몰랐다.

뜻밖의 정황에서 당황해하며 리순미동무가 어떤말을 몰라하던 그때 교과소과과 과장 김희성, 의사들이 황정열, 손수정동무들이 창조적치료와 협조를 하였다.

과에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가 나의 담당환자라는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피의로집단의 모습에서 힘을 얻었다. 리순미동무는 그후 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환자의 병을 호전시켰다.

지난해 12월말 환자의 어머니는 귀여운 자식을 품에 꼭 안고 되돌아왔다.

몇달전 얼굴의 또 다른 부위에 미미가 있어 다치할 환자의 고령소아과에 입원한 환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을 이미 터득한 교과소과과과로집단에 의해 짧은 기일에 건강을 회복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교과소과 의사들의 평균나이는 30대초이다. 그리고 과장을 제외한 이곳 의료일군들의 평균연령은 불과 한두해안과이다.

우리는 이곳 의료집단에 대한 취재과정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얻었다. 이리하여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지니게 될 수 있는 기쁨이 가슴에 새겨나갔다.

본사기자 방 경 찬

총련교육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백구령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교육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총련 교육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장, 미림송마구락부 등을 참관하였다.

전국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으며 전국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0일 예선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숙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천만근민이 뜻깊은 10월의 대축

전장을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0일 예선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답사행군은 전통명예 혁명전적지답사를 세계에 알리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열성같은 신념을 더욱 굳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 없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며 백두에 있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는것은 전제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확

고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은 답사를 통하여 백두산전설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새겨안으며 항일혁명신열들의 투철한 투쟁사유정신과 백철불굴의 수행정신을 깊이 체득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답사과정에 체득한 고귀한 사상정신적 양식을 가지고 농근맹사상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켜 모든 동맹원들이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는 보천보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지식의 높이와 실력의 높이

청진제 1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맞힐수 있도록 교육자적정신을 풍부히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정확한 평가에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하나둘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학교에는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것으로 하여 문제풀이능력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교원들이 부족한 한 교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 교원은 학생들에게 《저 혼자 말하는 교원》으로까지 인식되고있었다.

학교의 일군들은 그 교원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라고 요구하는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배우게 하는 교수방법의 중요성과 교리를 더욱더 높여주었다.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도록 모안을 펴워주고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결과 그 교원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속에서 학생들이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인식할수 있는 배우게 하는 교수방법의 선구자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가 창조교수방법을 대담하게 펴내려고 할수록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해결방도로 정리내용을 인식시키는 독특한 교수방법을 내놓았을 때 많은 교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비례식분배에 관한 정리, 합평균과 평평균사이에관계를 비

롯한 여러가지 정리교과를 현실문제와 결부시켜 교원과 학생들사이의 교감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보면서 교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기성의 성과 판매를 벗어나 모든 교수를 새롭게 복속시켜 진행하기 위해 전지하고 피라게 노력함으로써 예전의 《저 혼자 말하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 누구나 《기다리고 따르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의 모습에서 교원들은 배우게 하는 교수방법의 정미를 느끼며 누구나 참신하고 생동한 교수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 학교일군들은 이렇게 양양된 열의를 보다 높은 목표수행으로 지향시켜나갔다.

여기에서 학교일군들이 잘한것이 있다. 새로운 교수방법의 도입을 단순히 교육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후대승사상을 구현하는 사상교양과정에 되게 한것이다.

학교에는 실력도 높고 지난 시기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내는데서 좋은 성과를 보여준 젊은 교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울인 보람은 컸다. 그 교원은 잠시나마 성과에 만족하여 뒤처지게 물러났던 자신의 결함을 뒤늦게 보며 높은 목표를 향해 대오의 앞장에 나서 나갔다.

이런 사례들을 들자면 끝이 없다. 교원들이 먼저 인제가 되고 직업적행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학생들을 시대와 바라고 요구하는 참다운 혁명적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역군으로 키울수 있다는것이 이 학교의 교원들에서는 우리 당의 중요한 사명대개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해에도 수십명의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을 도입하고 실험기구 및 교원발전인증 등을 수여 받은것을 비롯하여 넘지마 넘어나가는 교원들의 자랑은 그대로 더 밝고 광창할 조국의 패일의 지평에서도 빛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 진 형

맞힐수 있도록 교육자적정신을 풍부히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정확한 평가에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하나둘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학교에는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것으로 하여 문제풀이능력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교원들이 부족한 한 교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 교원은 학생들에게 《저 혼자 말하는 교원》으로까지 인식되고있었다.

학교의 일군들은 그 교원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라고 요구하는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배우게 하는 교수방법의 중요성과 교리를 더욱더 높여주었다.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도록 모안을 펴워주고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결과 그 교원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속에서 학생들이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인식할수 있는 배우게 하는 교수방법의 선구자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가 창조교수방법을 대담하게 펴내려고 할수록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해결방도로 정리내용을 인식시키는 독특한 교수방법을 내놓았을 때 많은 교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비례식분배에 관한 정리, 합평균과 평평균사이에관계를 비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대표단 도착

조선해방 70돐을 축하하며 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을

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명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또한 이날 위령탑 제막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대성구루배대표단이 왔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일군대표단 도착

조국애방 70돐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참가할 남주족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일군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해방 70돐을 축하하며 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을

